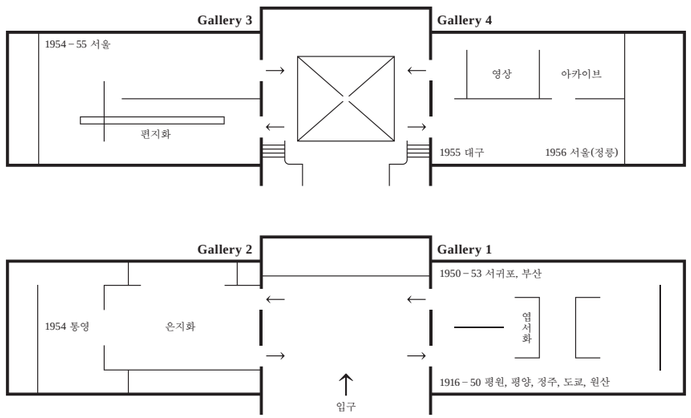


이중섭(1916~56)은 1916년 평안남도 평원의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나 평양, 정주, 도쿄에서 학업을 쌓았다.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화가 활동을 시작했고, 함경남도 원산으로 돌아온 후 해방을 맞았다. 한국전쟁으로 제주도, 부산 등지에서 피란생활을 했고, 전쟁 직후에는 통영, 서울, 대구 등지를 전전하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정적인 작품 활동을 하다가 1956년 4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식민지, 전쟁, 분단 등으로 얼룩진 한국의 근대사를 관통하면서도 이중섭은 끈질기게 '예술가'로서의 삶을 고집했다. 일제 강점기에도 민족의 상징인 '소'를 서슴없이 그렸고, 한없이 암울한 현실을 자조하는 그림을 남기기도 했다. 가난한 피란시절에도 가족과 행복한 시절을 보내며 순진무구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가하면, 전쟁 후에는 강렬한 의지와 자신감으로 힘찬 황소 작품들을 쏟아내었다.

그는 무엇보다 자신의 감정표현에 충실한 '정직한 화공'이 되고자 했고, 한국의 전통미감이 발현된 '민족의 화가'가 되기를 소원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진 후 사기로 인한 빚에 시달렸고, 경제적 생활고 속에서 '거식증'을 동반한 정신적 질환으로 불행한 말년을 보내야 했다. 결국 쓸쓸하고 애잔한 작품들을 뒤로 한 채 홀로 세상을 떠났다.

올해 이중섭의 탄생 100주년, 작고 60주년을 맞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이중섭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한국의 파란만장한 역사 속에서 한 천재적인 예술가의 '꿈과 좌절'의 경로를 되짚어보며,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과 예술의 의미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1916~1950 평원, 평양, 정주, 도쿄, 원산

이중섭은 1916년 9월 평안남도 평원에서 내어나, 외가가 있는 평양의 종로보통학교에서 수학했다. 이후 1930년 정주의 민족사관학교인 오산고등보통학교에서 예일대학교 출신의 미술교사 임용련(1901~?)의 지도를 받으며 본격적인 미술공부를 시작했다.

1936년 일본 도쿄의 제국미술학교를 거쳐 1937년~1941년 '문화학원'에서 유학했는데, 문화학원은 당시 일본에서도 가장 자유로운 분위기의 사립학교였다. 문화학원의 선배들도 적극 참여했던 '자유미술가협회'에서 작품 발표를 시작해서 일본의 주요 평론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협회의 회원 자격을 얻기도 했다.

1943년 태평양전쟁이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 가족들이 있던 원산으로 귀국하였으며, 1945년 5월 해방 직전 문화학원의 후배였던 야마모토 마사코와 원산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세 사람〉
1945년경, 종이에 연필, 18.2×28cm



1950~1953 서귀포, 부산

1950년 12월 원산 폭격을 피해 어머니는 남겨둔 채 아내 및 두 아들과 함께 부산으로 피란 내려온다. 이 때 그 이전까지 제작한 작품을 모두 어머니 품에 남겨놓고 오는 바람에, 이중섭의 1950년 이전 작품은 극히 드물다. 피란지 부산이 너무 비좁았던 관계로 1951년 제주도로 거처를 옮기는데 여기서 약 1년간 가족들과 가난하지만 행복한 피란생활을 한다.

1951년 12월 부산으로 돌아와 피란촌을 전전하며 가난한 생활을 이어간다. 1952년 7월 아내와 두 아들이 일본으로 돌아가서, 홀로 남은 가운데 작품 활동과 전시회 참가, 잡지 삽화나 도서 표지화 그리기 등을 계속한다. 그러나 부산에서 제작된 수많은 작품이 대화재로 불타서 대부분 없어진 것으로 전한다.



〈바닷가의 아이들〉
1950년대, 종이에 연필, 유채, 32.5×49.8cm, 금성문화재단 소장

〈봄의 아동〉
1950년대, 종이에 연필, 유채, 32.6×49.6cm



이중섭의 은지화

은지화는 이중섭이 창안한 새로운 기법의 작품이다. 양담배를 싸는 종이에 입혀진 은박을 새기거나 긁고 그 위에 물감을 바른 후 닦아내면, 긁힌 부분에만 물감자국이 남게 된다. 그렇게 해서 깊이 패인 선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드로잉이 완성되는데, 평면이면서도 층위가 생길 뿐 아니라 반짝이는 표면효과도 특징적이어서 매우 매력적인 작품이 된다. 이러한 기법은 고려청자의 상감기법이나 철제 은입사 기법을 연상시킨다.

이중섭은 상당히 오랜 기간 약 300점의 은지화를 제작했다는 증언이 있는데, 그 중 일부가 전시장에 진열되었다. 제주도 서귀포 시절 행복했던 가족들의 모습을 추억하는 것에서부터, 비극적인 사회 상황과 자신의 처참한 현실을 암시하는 내용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장면들이 예리한 칼로 새겨져 있다. 이중섭은 이 은지화들이 후에 '벽화'를 그리는 밑그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거대한 벽화를 그려서, 예술이 공공장소에서 많은 이에게 향유되는 꿈에 부풀곤 했다.

〈두 아이〉
1950년대, 은지에 새김, 8.5×15.5cm



1953~54 통영

전쟁이 끝날 무렵부터 전쟁 직후 1954년 6월경까지 월남한 공예가 유강렬(1920~76)의 주선으로 통영 나전칠기전습소에서 강사로 재직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에서 의욕적인 작품활동을 계속했다. 아름다운 통영의 풍경을 그린 유화작품이나 유명한 '소' 연작들이 이 때 제작되었다. 이중섭의 개인전이 최초로 열리기도 했고, 〈4인전〉에 참여하는 등 본격적으로 화가의 경력을 쌓아갔다.

〈욕지도 풍경〉
1953, 종이에 유채, 39.6×27.6cm



〈황소〉
1953–54, 종이에 유채, 32.3×49.5cm



이중섭의 편지화

이중섭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 7월경
아내와 두 아들을 일본으로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졌다. 이후 그는 여러 지역을 정처 없이
떠돌며 가족들에게 수많은 편지를 보냈다.
처음에는 언제든 곧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즐겁고 다정다감한 편지를 많이
썼다. 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아들을
염려하며, 그림을 곁들인 사랑스러운 편지들을
많이 남겼다. 그러나 1955년 중반 이후
점차 절망 속으로 빠져들면서 편지를 거의
쓰지 않았으며, 심지어 아내로부터 온 편지를
읽어보지도 않았다고 전해진다.

이중섭이 보낸 편지들 중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은 약 60통, 160매에 이른다.
이 편지들은 이중섭의 생애와 작품의 관계를
연구하는 근거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록적 가치를 지닐 뿐 아니라, 자유자재의
글씨와 즉흥적인 그림이 어우러져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보기에도 손색이 없다.



〈가족을 그리는 화가〉
1953–54년경, 종이에 펜, 채색, 26.4×20cm

1954~1955 서울

가족들과는 떨어진 가운데 홀로 서울 생활이
시작되었다. 누상동, 상수동 등 지인의 집에서
기숙하며 1955년 1월에 미도파화랑에서
열리는 개인전을 준비하는데 몰두했다. 일본의
아내가 일본에서 책을 사다 한국에 판매하여
그 차익으로 수익을 내는 사업을 했으나,
중간 업자가 돈을 떼먹는 바람에 극심한 빚에
시달리게 된다. 이 빚을 갚고 일본에 있는
가족들과 만나기 위해, 개인전으로 통해
작품을 팔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이 전시에서 작품은 약 20점이나 팔렸으나,
수금이 되지 않아 곤경에 빠지기 시작한다.



〈닭과 가족〉
1954–55, 종이에 유채, 36.5×26.5cm



〈길 떠나는 가족〉
1954, 종이에 유채, 29.5×64.5cm

1955 대구

1955년 1월 있었던 서울 전시에 이어
5월 대구의 미국공보원 화랑에서도 개인전을
개최한다. 절친했던 시인 구상(1919~2004)의
도움으로 마련된 이 전시회는 서울에서보다 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후 '가장'의
역할을 해내지 못한 채 "예술을 한답시고
공밥을 얻어먹고" 무슨 대단한 예술가가 될
것처럼 세상을 속였다고 자책하며,
거식증을 동반한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렸다.
대구 외곽 왜관에 있던 구상의 집에서
머무르며, 요양생활과 작품제작을 계속했다.



〈시인 구상의 가족〉
1955, 종이에 유채, 32×49.5cm

1956 서울(정릉)

병원을 전전하던 이중섭은 1955년 12월경부터
서울의 정릉에서 화가 한묵(1914~), 소설가
박연희(1918~2008), 시인 조영암(1920~?)
등과 함께 생활했다. 이 때 문예지의 삽화를
그리기도 하고, 〈돌아오지 않는 강〉 연작을
포함한 마지막 작품들을 남겼다. 그러나
거식증으로 인한 영양실조, 간장염 등으로
인해 다시 병원생활을 하다가 1956년 9월 6일
적십자병원에서 무연고자로 생을 마감했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서울 망우리공원에 묘소와
묘비를 마련했다.



〈소〉
1955년경, 종이에 유채, 27.5×43cm, 서울미술관 소장

관람안내

전시기간
2016년 6월 3일(금) ~ 10월 3일(월) (매주 월요일 휴관,
단 6월 6일, 8월 15일, 10월 3일은 전시 진행함)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덕수궁미술관)

지하철
1호선 시청역 2번 출구
2호선 시청역 12번 출구

주차
덕수궁내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인근 프라자호텔, 코리아나호텔,
한성주차장, 경향신문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등 유료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99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덕수궁내)

전시문의	홈페이지	예매
02-522-3342	www.jungseob.com	인터파크 1544-1555

관람시간
화, 목, 금,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7시 (입장마감 6시)
수,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9시 (입장마감 8시)

관람료	구분	성인	유치원 및 초·중·고교생
덕수궁입장료포함	개인	7,000원	4,000원
	단체 (10인이상)	5,600원	3,000원
미술관 입장료 (덕수궁입장료제외)	개인	6,000원	4,000원
	단체 (10인이상)	4,800원	3,000원
특별할인	65세 이상 어른신, 장애인(3급 이상은 보자 1인 동반) 국가유공자, 5,18유공자, 상이군경,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단체인솔시 교사 1인 미술관 유료회원, 아시아나 우수회원, 현대카드 플래티넘 프리미엄 회원, 학예사자격취득자, 예술인패스소지자, ICOM 카드 소지자, 조선일보카드(기업은행제휴)		
기타	48개월 미만: 무료 문화가 있는 날: 성인 4,000원, 유치원 및 초·중·고교생 2,000원		

MMCA 과천 30년
Gwacheon, 30 years
1986 - 2016
국립현대미술관



〈흰 소〉(부분), 1955, 종이에 유채, 29×41cm, 홍익대학교박물관 소장

이중섭, 백년의 신화

LEE JUNG SEOB
1916–1956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2016년 6월 3일 –
10월 3일

이중섭 탄생 100주년
100th Anniversary of Korean Modern Master

주최 국립현대미술관 조선일보 이중섭미술관 후원 KOREAN AIR 협력 CHRISTIE